

# 나는 '스쿨 밴드'다



10여년 전 결성한 그룹 달사비의 학창시절 모습(왼쪽)과 성인이 된 현재의 모습. <달사비 제공>

학창시절 밴드부 드러머나 보컬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청소년 문화활동을 이야기할 때 '밴드'를 제외하고선 어딘가 허전할 정도. 방과 후 교복차림에 드럼sticks을 쥔 동급생의 모습을 어딘가 '반항아 기질'이 있어 보여 멋들어졌다.

그러나 학업에 지친 오늘날 학생들에게 '스쿨 밴드'란 가깝고도 멀다. "독서동아리"나 '의대진학반'도 좋지만 밴드부에 가입해 문화소양도 쌓는 게 어떨겠나"라는 조언은 청소년들의 고충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일 수도 있다.

이같은 현실에도 지역에서 밴드부 명맥을 이어가는 학생들과 '스쿨밴드 출신'으로 무대에 서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 화정중 '제로(ZERO) 밴드부' 장을 맡고 있는 조민정(여·1학년) 양은 보컬리스트를 꿈꾸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칭찬도 많이 들었기에 자연스럽게 작년 3월 오디션을 보고 교내 밴드부에 가입하게 됐다. 작년 7월에는 버스킹을 진행했으며 11월에 축제에도 올랐다. 오는 10월 화정중 축제에서도 공연을 계획하고 있을 만큼 열정적이다.

"밴드부에서 활동하며 음악분야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스쿨밴드 경험이 소통 능력과 음악적 커리어

## 화정중 'ZERO' 보컬리스트 조민정 양, 상무고 밴드부 출신 '달사비' 광주 밴드부 학생들, '스쿨밴드' 명맥 이어가...아티스트들과 협업도

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러 악기들이 뒤섞이는 것처럼 개성 있는 학생들이 조화를 이루는 밴드부 활동은 활기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밴드부 제로의 악기 구성은 드럼, 베이스, 피아노가 전부다. 당초 일렉기타 연주자가 있었지만 빠져나가며 악기 구성이 단순해진 것. 이렇듯 많은 학생들이 학업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결성한 그룹사운드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아가 스쿨밴드는 대부분 대학 진학과 동시에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학창시절 '밴드부'를 매개로 뮤지션을 꿈꾸는 조 양과 같은 사례는 이색적이다.

광주 상무고 밴드부 출신 '달사비' (달콤쌉쌀한 이야기)는 현 멤버 구성재(보컬, 기타)와 김도연(베이스) 등이 10여년 전 광주상무고에 재학하던 중 기획했던 팀이다. 여기에 드러머 박종근이 합류하며 지금의 완전체가 된 것. 팀은 언플러그드 무직을 지향해 어쿠스틱 기타를 주무기 삼아 그동안 정새벽, K2 김성민, 권남훈, 신잔디 등의 아티스트들과 지역 내외에서 협업해 왔다.



광주화정중 제로 밴드부를 이끌고 있는 조민정 학생.

구성재씨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악기를 접하다가 고등학교 그룹사운드에 몰 흐르듯 참여하게 됐다"며 "10년 넘게 스쿨밴드를 이어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 음악의 원초적 재미와 열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 스쿨밴드 학생이었기에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던 것 같다. 당시를 회상하면 웃음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때로는 동고동락하던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이좋게 즐기며 하다 보면 성장할 거라 봅니다. 다시 오지 않을 학교생활에 공부와 더불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후회없이 그것을 해보길 바래요. 경험상 그제 밴드부 활동이면 더 좋구요." 광주전남 스쿨밴드에서 예비 뮤지션의 꿈을 키우고 있는 후배들에게 김도연씨가 남긴 격려의 말이다.

박종근씨도 "스쿨밴드 특성상 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며 "음악을 취미로 하든 업까지 염두하든 몸담는 동안 열정을 갖고 임하면 좋겠다"고 덧붙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고산문학대상에 손택수·강현덕 시인 선정

각각 현대시·시조 부문

제23회 고산문학대상에 손택수 시인(현대시), 강현덕 시인(시조)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 작품집은 각각 '어떤 슬픔은 함께할 수 없다', '너는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어서'이며 상금은 각각 2000만원.

고산문학추진운영위원회(위원장 황지우)와 '열린시학'은 제23회 고산문학대상에 현대시 부문 손택수 시인, 시조 부문 강현덕 시인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산문학상은 한문이 주조를 이루던 조선조 시대에 우리말로 서정시를 응결시켰던 고산 윤선도의 선구적인 시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시 심사를 맡은 김광규·남진우 시인, 조영복 평론가는 수상작품집에 대해 "난해한 어휘와 관념적 서술이 팽배하는 현대시의 혼란 풍조와 달리 자기 나름의 독자적 언어와 문법을 체현하고 있다"며 "낭만적 감성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블리 퇴영적 감성에 빠지지 않는 정신의 기운을 보여주는 시를 놓담, 은유로 가득찬 노래조의 말을 얻었다"고 평했다.

시조 부문 심사를 맡은 한분순·이정환 시



손택수 시인



강현덕 시인

인, 유성호 평론가는 수상 시조집에 대해 "우아한 야성의 대자연 속에서 삶을 안아 주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획득하고 있다"며 "단단한 듯 부드러운 정형미학에의 충실감(充盈感)과 시대정신의 적극적인 수용과 정교하면서 밀도 높은 서정세계 보여준다"고 평했다.

올해로 7회 짝을 맞은 현대시 부문은 최은영의 '어름이었다'와 시조 부문은 김영옥의 '석류가 비명을 지를 때'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상금은 각각 300만원.

한편 시상식은 제23회 고산문학추진과 함께 오는 10월 13일 고산의 고택이 있는 해남읍 연동리 고산유적지 땅끝순례문학관 문학의 집 '백련재'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여성가족재단 '나이들은 나도 처음이라'

29일부터 북카페 은새암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은 '나이들은 나도 처음이라'를 9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북카페 은새암에서 개최한다.

'여성의 나이에 관한 현대의 관점'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여성의 노년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는 자리다. 29일(오전 10시)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오후 2시), 12일(오전 10시)에 걸쳐 총 3회 진행된다.

29일에는 토크콘서트 '여자인 나, 사람인 나'가 예정돼 있다.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김화순 화가, 이화경(사진) 작가, 김해숙 작가가 경험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 5일에는 저자초청 특강 '늙어감을 정



말 사랑할 수 있을까가 열린다.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김영옥 대표의 '늙어감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흰머리 휘날리며'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가 개최된다.

12일에는 '주름은 나의 힘, 나이는 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아트토크를 진행한다. 임인자 소년에서 대표가 사회를 맡으며 패블로 임현옥 감독(프로덕션허미티대표), 공공미술·예술사회학 연구자 김신윤주 작가가 참여해 노화와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무료 진행.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상상실현네트워크, '청년문화예술포럼'

28일 문화공간 '호랭이소굴'

광주 시민문화단체들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광주시 청년예술인 관련 예산, 정책 및 지원 사업에 시가 팔 걷고 나서기를 촉구했다.

젊은 문화단체들의 연대체 '상상실현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라온드테이블 '청년문화예술포럼'을 오는 28일(오후 7시) 청년문화공간 호랭이소굴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정두용(네트워크 공동 대표)과 박자행(희망제작소 연구원)이 발제를 맡으며 신진그룹과 전문그룹으로 나뉘어 청년예술인 예산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네트워크는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된 '광주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할 수 있게 조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것, 현재 1%를 밀도는 청년문화예술 정책 예산을 전국 평균인 2% 이상으로

늘일 것을 요구했다. 2023년도 광주시 문화체육실 예산 중 체육진흥예산은 제외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총 2473억 원이다. 그중 청년문화예술 정책의 총예산은 7억8000만 원 가량으로 전체 문화예술예산 중 0.31%에 그친다.

문화예술 예산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등 집행처가 나뉘어 있어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상상실현네트워크는 AI검색엔진 Bing을 활용해 자체 조사한 결과 부산 3%, 서울 2.86%, 대구 2.5%, 광주는 0.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네트워크에는 광주 문화예술단체 및 기업 (사)청년문화허브, ㈜오로지스튜디오, 이야기브릿지, 극단 연인,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 등 3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포럼에는 네트워크와 광주문화도시사업의 회, 광주민예총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달의 정원'

김성대 개인전, 29일부터 아크갤러리



'달의 정원-매화'



'달의 정원-브로콜리'

'달'은 다양한 예술 장르의 가장 보편적인 소재이자 모티프이다. 지금까지 달을 매개로 수많은 시와 소설, 그림, 영화, 음악 등이 창작됐다. 은은한 달빛이 비추는 장면은 보는 이에게 따스함과 마음의 평안을 준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밝은 것에 대한 희원, 밝음의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다.

김성대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달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스함이 드리워져 있다. 하루하루 바쁜 삶에 쫓기고 지친 이들에게 달은 "수고했어"라고 말을 건네는 것 같다. 어머니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 그저 모든 것을 내려주고도 '아무렇지 않은' 우리 옛 어른들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다.

김성대 작가가 달과 정원을 모티프로 전시를 연다. 광주 아크갤러리(동구 문화전당로 26번길 10-8)에서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되는 전시의 주제는 '달의 정원'.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작업한 약 25점이 출품됐다.

작가는 최근 몇 년간 유년 시절 보았던 달빛의 정경을 화폭에 들이는 작업을 해왔다. 차별없이 세상을

비추는 달빛은 삶의 고단함과 슬픔을 달래주고 기쁨을 주는 매개였다. 달빛에 만개한 꽃은 달꽃이 되어 마을을 품어주었고 세상의 그늘진 곳을 따스하게 다독여주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달꽃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달과 채소와 브로콜리 등을 배치해 정원을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달의 정원-매화', '달의 정원-브로콜리', '달의 정원-매화와 솟대', '달이 꽃이여' 등의 작품은 전설 속 달 이미지 또는 송고한 대상으로서의 달의 아우라와는 거리가 멀다. 정원을 구성하는 가장 품이 넓은 터줏대감으로 초대해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이웃의 느낌을 갖게한다.

특히 돌가루나 젤스톤, 한지 등의 미디움(중간 재료)을 작품과정에 사용하고 유화물감으로 마무리를

해 독특한 질감을 발현한다. 근원에 대한 향수, 본질에 대한 향수가 임하지는 이유다.

윤익 미술문화기획자는 "그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달의 정원'에는 모든 것을 생성시켜내는 사랑의 메시지가 자리하여 작가로서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감탄하게 한다"고 평한다.

한편 김성대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석사를 수료했다. 제17회 대한민국 회화대상전 대상 수상 작가전, 2019 상해국제아트페어, 2018 조형아트서울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제17회 대한민국 회화대상전 대상, 제10회 올해의 대한민국인(문인화 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